

광주·전남 외국인 관광객 신용카드 지출 15·16위

(269억·227억)

교통·항공 등 인프라 취약 찾아오는 관광객 적어

2016년 지출액 분석 ... 광주 의료부문은 9위에

지난해 외국인의 광주·전남지역 관광 부문 신용카드 지출액이 각각 269억원, 22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신하 연구원과 공동조사해 23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지출액 분석' 결과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총 308억원, 260억원을 썼다. 전국 17개 시·도 지출액 순위로는 광주가 15위, 전남은 16위

였다.

관광부문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각각 15위(269억원), 전남은 16위(227억원)에 머물렀다. 광주는 2015년 대비 7억5000만원, 전남은 33억2000만원 증가했다.

시·도의 관광부문 지출액은 외국인의 전체 신용카드 지출액(10조1406억원) 비중으로 따져 각각 0.3%, 0.2%에 그쳤다. 공연장, 오락시설 등 체험 부문에서도 광

주와 전남이 각각 3억원을 기록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전남은 4억원인데 비해 광주는 4900만원에 그쳤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교통·항공 등 인프라 등이 취약, 광주·전남지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타났다. 광주는 17개 시·도 지출액 순위에서 9위(20억원)를 기록했다. 지역 의료수준이 상위권인데다 병원들이 해외 환자 유치 등에 공을 들인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

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모두 13조7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32% 늘었다. 이 중 중국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8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8%, 미국인은 9.4%로 각각 2015년보다 3.9%p, 0.5%p 하락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총 1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개 선정 ... 전국 최다

섬 교통불편 해소 인프라 구축 등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신청한 5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광주 동구·광산구,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37억원)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광주, 담양·화순) ▲남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인프라 구축사업(완도·고흥 37억원)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 사는 구급담 만들기(구례·곡성·담양 18억원)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강진·장흥·영암 24억원) 계획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무등산권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오투레일 코스를 개발해 자연유산 연계관광을 활성화하고, 무등산권 지역산품을 글로벌브랜드로 개발해 지역민 경제 활성

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통해 무등산권 지질관광을 세계화한다는 계획이다.

장돌뱅이사업은 광주시를 비롯해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상인단을 육성해 빈 점포에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생활권내 전통시장 순회공연을 위한 청년 문화유랑단 운영, 전통시장의 상생교류를 확대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완도군이 주관해 신청한 '남도 해상교통 불편 해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완도 금일읍에서 고흥 도양읍 녹동항까지 1시간 35분 소요되는 선박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고흥 거금면 신항에 물양장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운항시간이 35분 단축돼 도서민의 해상교통 편의 및 화물 운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전국에서 84개 사업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읍주운전·금품수수 비위행위 징계자 인사패널티

광주시 인사혁신 방안 마련

광주시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혁신안 수립과 시행을 목표로 지난 2개월 동안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초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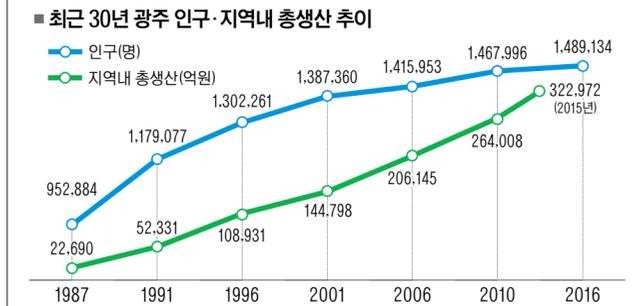
이어 직렬·노조 대표 등이 참여한 '인사혁신 TF'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초안은 ▲경력에 따른 단계별 보직경로 시스템 운영 ▲다수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局) 서무과 등 선호 부서 근무 기간 일몰제 실시 ▲한 부서 장기 재직근무자 순환전보 의무화 ▲실·국내 전보 제한기간 확대 ▲조직·인사팀 기술직렬 직원 배치 ▲특별승진·발탁 승진, 특별승급 제도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 ▲읍주운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행위 징계자에 대한 인사패널티 적용 등이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무등홀에서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광역시 승격 30년 ... 통계로 본 발전상



인구 95만→148만명 ... 56.3% 증가

행정구역 2배, 예산 28.6배, 1인당 생산 10배 ↑

지난 1986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한 광주시는 30년 동안 행정구역은 2배, 인구는 56.3% 증가했다.

도시가 커지면서 경제, 사회복합, 상하수도, 도로망 확충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확대됐다.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자동차 등록 대수로 3만2000여대에서 지난해말 63만3400여명으로 19.8배 급증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86년 11월 1일 광역시(직할시) 승격 이후 30년 인 울해를 기준으로 각종 통계를 비교한 결과 인구는 95만2884명에서 148만9134명으로 56.3% 증가했다.

총생산은 1.23%에서 0.83%로 감소했고, 가구당 인구는 4.4명에서 2.5명으로 줄어 저출산 세대와 핵가족화를 반영했다. 외국인 수도 243명에서 1만9920명으로 늘어났다.

면적은 직할시 승격 이전 3개 자치구 215.11㎢에서 5개 자치구 501.24㎢로 늘었다.

예산규모는 1629억원에서 4조6599억원으로 28.6배 늘었다. 지역내총생산

(GRDP)은 2조2690억원에서 32조2972억원으로 14.2배 증가했다. 1인당 생산 수준은 212만원에서 213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1.85%에서 2.07%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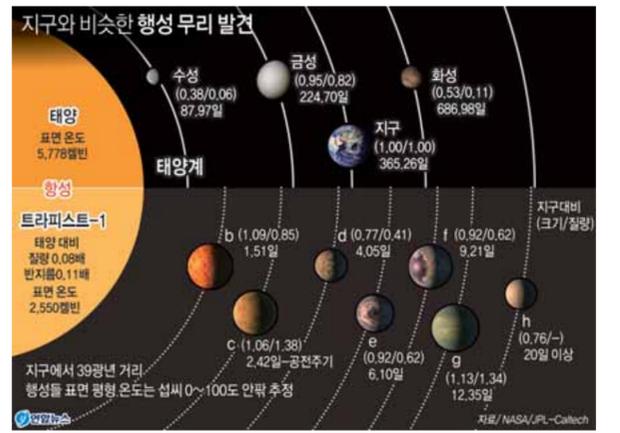
경제활동 인구는 30만2000여명에서 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수출은 7억7300만달러에서 146억9800만달러로 19배, 수입은 5억3300만달러에서 56억2800만 달러로 10.5배 늘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5만9500여개에서 11만3500여개, 종사자 수는 26만5000여명에서 55만7000명으로 각 1.9배와 2.1배 증가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있는 사회복지, 생활행정 분야도 대폭 개선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는 8064가구 3만4242명에서 3만9147가구 7만1556명으로 확대됐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87%와 60%에서 각 99.8%와 86%로 높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제트추진연구소(JPL)와 캘리포니아주 공과대학(CALTECH)이 제공한 트라피스트-1 행성과 7행성의 상상도.

39광년 거리 '쌍둥이 지구' 7개 찾았다

표면 온도 섭씨 0~100도

액체 상태 물 존재 가능성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 7개가 태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행성 주변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특히 케토 등을 고려하면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만한 수준이어서 생명 발생에 적합한 여건을 갖췄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벨기에·미국·영국·스위스·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연구자들이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과학지 '네이처' 23일자에 이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트라피스트-1'이라고 명명된 조그만 왜성(dwarf star) 주변에서 지구형 행성 3개를 발견했다는 작년 5월 네이처 논문의 후속 연구다.

이 왜성은 지구에서 39광년(370조

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는 태양-지구 거리의 250만배, 태양-목성 거리의 99만배에 이르지만, 행성 중에서는 우리 태양계에 매우 가까운 편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와 태양 사이의 거리(4.4광년) 대비 8.9배다.

트라피스트-1에 내는 빛에너지 복사량과 그 주변에서 확인된 행성 7개의 케토를 고려하면 이 행성들의 표면 평균 온도는 대체로 섭씨 0~100도 안팎으로 추정됐다. 즉 만약 행성 표면에 물이 있다면 얼음이나 수증기가 아니라 액체 상태 물로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다.

네이처는 논문과 별도로 이 연구의 의미에 대한 해설을 '지구의 잃어버린 자매'이라는 이름으로 실었다. 해설 집필은 논문 게재 심사에 참여했던 이그나스 벨렌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가 맡았다.

연합뉴스

이형석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내달 당 최고위원 맡아

이형석(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이 오는 3월1일부터 당 최고위원 임기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혁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시·도당 위원장이 호선을 통해 최고위원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이 6개월 간 맡았고, 이어 이형석 위원장이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맡게 된다. 나머지 10개월은 이계호 전남도당위원장이 호남을 대표해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형석 시장위원장은 23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억누른 광주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

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표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를 밝혀 미안해 그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광주에 대한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위원장에 선출된 후 지금까지 지역 민심을 경청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통한 3기 민주정부수립과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챙기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분양 모집중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에이엠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